

# 납품대금 연동제



여지윤 변호사의 부동산 세상

2023년 10월 4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되는 수·위탁 거래부터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된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기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주기적으로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제 해당 거래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인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상생협력법이 적용되는 '수·위탁 거래'여야 한다. '수·위탁 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및 부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제2조 제4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는 물론이고 중소기업간의 거래도 포함된다.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또한 하도급법상의 하도급거래와 달리 위탁기업인 중소기업이 수탁기업인 중소기업보다 매출액

이 더 많을 필요도 없다. 하도급거래와 달리 업에 따른 위탁이 아니어도 가능하므로, 용역업자가 제조위탁을 할 경우 하도급거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수탁·위탁 거래에는 해당한다.

다음으로 납품대금 연동대상인 '주요 원재료'인지 따져봐야 한다.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는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연동제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인 경우 ▲거래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납품대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연동제가 적용되지 않는다(제21조 제3항). 다만 이러한 예외규정을 악용해 계약기간이나 금액을 쪼개거나 수탁기업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경우, 탈법행위에 해당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제21조 제4항, 제43조 제2항).

이러한 검토 단계를 거쳐 연동제 대상임이 확정되면 위탁기업은 '연동 약정서'

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연동제의 핵심이다(제21조 제1항). 위 약정서에는 연동대상인 물품 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산식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위탁기업은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해야 하고, 성실한 협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및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제21조 제2항, 제27조, 제28조의2). 이러한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탁기업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벌점이 부과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제27조, 제28조의2, 제43조 제3항).

추후 위탁기업 및 수탁기업은 위 약정서에 기재된 대로 조정일마다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한 후, 조정요건 충족 시 연동 산식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고 이를 '납품단가 변동표'에 기재해야 한다. 위탁기업이 연동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시정명령 및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제27조, 제28조의2).

/법무법인 바른

※여지윤 변호사의 정기 칼럼 [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이 5월2일자부터 [여지윤의 부동산 세상]으로 타이틀을 바꿔 연재합니다.

# 증시변동성 키우는 SG發 사태



기지수첩 원관희 (자본시장부)

2차전지 관련주 과열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까지 겹치면서 최근 국내 증시의 상승세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특히 SG증권발 사태가 투자 심리에 부담을 주고 있어 하루빨리 이번 사태를 종식하지 않으면 경기 침체 우려와 겹쳐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SG증권발 사태의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는 데에 있다. 특히 유명연예인과 기업 인사들이 주가조작 세력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현재 여러 세력이 가담한 주가 조작 세

력이 차액결제거래(CFD)로 레버리지 투자를 하다가 증거금 부족으로 반대매매가 일어나 벌어진 것이라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년간 상승세를 보였던 대성홀딩스, 선광, 삼천리, 서울가스, 세방, 다우데이타, 하림지주, 다올투자증권 등 8개 종목이 이번 SG증권발 사태에 관련됐다. 이들 종목은 24일 SG사태가 터지자 하한가로 떨어졌다. 특히 서울가스와 대성홀딩스, 선광은 4일 연속 하한가라는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그동안 물밑에서 떠돌던 이들 종목에 대한 주가조작 의혹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주가 조작 세력은 아주 긴 시간 동안 광범위하게 이들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린 새로운 주가조작 형태를 보여줬다. 이들 세력들은 지난 2020년부터 다단계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를 일임한 투자자 명의로 후대전화를 개통하고 주식계좌를 만들어 해당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주가를

끌어올리는 통정거래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검찰과 금융당국이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공매도 세력 연구 가능성, 대주주의 사전 인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는 한편 주가조작에 관련된 해당 인사들에 대해 출국 금지를 내렸다.

수사가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는 모르지만 1차적으로 금융위원회의 능동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초 일부 종목에 작전 세력이 개입했다는 정황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신속하게 대응했다면 이들 세력들이 대규모로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고 뒤늦게 들어온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금융당국은 이제라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 시장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wkh@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5월 2일 (금 3월 13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아랫사람이 길을 터주니 일이 수월. 48년생 산돌바람이 불어오니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 60년생 적당한 경쟁력이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 72년생 시장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격. 84년생 주위에 아무도 없어서 쓸쓸하다.



37년생 자손이 송진되니 경사가 겹겹. 49년생 모심으러 갈 때는 장화를 신어야. 61년생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을 달래다 보면 길도 보인다. 73년생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가라. 85년생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니 회사가 번창함.



38년생 얼룩진 옷은 바라보지 말고 세탁. 50년생 비단옷을 입고 걸어도 봐주는 사람이 없다. 62년생 동료와 의견이 맞지 않아도 한발 양보해보자. 74년생 무엇을 해도 기본 좋은 날. 86년생 사방을 둘러봐도 의자할 곳이 없다.



39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51년생 달빛이 밤하늘을 밝히게 하니 활기차다. 63년생 성공을 원한다면 오늘을 알차게. 75년생 자주 만나야 마음을 알 수 있다. 87년생 좋은 얼굴로 남을 대하니 더욱 발전이다.



40년생 농친 고기가 커 보인다. 52년생 검은색 옷을 입을 일이 생긴다. 64년생 진퇴양난의 경우라도 조심하면 길이 열린다. 76년생 상사의 조언이 문제의 열쇠가 되니 경청해야. 88년생 노력이 이성문제로 사상누각에 처한다.



41년생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홀히 하지 마라. 53년생 주변이 어수선하니 언행과 측근 조심. 65년생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이니 실망은 금물. 77년생 신경질 내면 본전 찾기 힘들다. 89년생 소나무처럼 항상 푸른 내 마음이다.



42년생 지는 앞을 보면 나를 보는 듯. 54년생 유혹이 많으니 마음을 굳건히. 66년생 해도 해도 버리는 연인은 인생을 같이 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78년생 행복은 언제나 주변에 있다. 90년생 세상에는 비밀이 없으니 말조심을.



43년생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니 돈에 겸손해야. 55년생 현실에 만족하면 후회는 없다. 67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지 마라. 79년생 골치 아픈 일은 부모님과 상의. 91년생 무슨 일든 결국은 올바른 이치대로 움직인다.



44년생 죽은 비가 오면 더 푸르러 지니 참고 견뎌라. 56년생 바쁜 하루 보람은 있다. 68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는 길도 물어라. 80년생 내키지 않는다고 핑계고 자멸 것인가. 92년생 무슨 일이나 시기를 놓치면 후회하는데.



45년생 소금 장사 지나가는데 비가 오는 격이니 매사에 조심. 57년생 공과 사를 다시 살펴보자. 69년생 사방으로 운이 열렸으니 이지도 무난. 81년생 매파를 보냈으나 소식이 없어 난감하다. 93년생 산길이 아름답고 물이 깨끗하다.



46년생 외로움보다 힘든 것은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 58년생 어려운 일이 동료 선배의 도움으로 해결. 70년생 마음이 상해도 상사의 뜻을 존중하라. 82년생 병원에서 소지품 주의. 94년생 열음과 숲의 차이를 꼭 먼저보고 알겠는가.



47년생 쾌청한 날이니 새로운 일에 도전. 59년생 흰색이 행운을 주니 스카프라도 해 보길. 71년생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승패를 좌지우지. 83년생 스승님을 찾아뵙자. 95년생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있고 집안의 계획은 화목에 있다고 했다.



## 김상회의四季 소나무 수난시대

소나무는 대한민국에서는 각별히 사랑받는 침엽수이다. 소나무에서 나는 송진은 독특한 향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약재이기도 하여 오랜 세월 소중한 자산이기도 했다. 목재로도 상품이라 조선시대 때는 소나무벌채를 금지하는 송금(松禁)정책까지 시행되었으니 우리국민의 소나무사랑이다. 무엇보다 추석 때 으뜸 전통 음식인 송편은 말 그대로 솔잎을 깔아 코끝에 맴도는 솔향과 함께 반달모양 송편을 먹는다는 것은 넉넉한 한가위의 품격까지 높인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반에 걸쳐 유럽과 북미 등 북반구 전반에 자생하는 대표적 침엽수지만 우리나라만큼 소나무에 대한 애정이 특별한 것 같지는 않다. 우리나라 수종 중 가장 넓은 분포면적을 가지며 개체수도 가장 많다고 하는데 특히 화강암지대에서도 잘 자라니 우리나라와도 궁합이 맞는 나무라 아니할 수 없다. 노목은 노송(老松)이라 불리며 장엄하고 눈서리를 이겨내는 사시사철 푸른 기상은 곧은 절개로 대쪽 같은 선비들의 표상 그 자체이다. 잎 끝이 뾰족하여 굽히지 않는 의지의 상징으로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그 소나무에 대해 무용론(?)을 얘기하고 있다. 최근 잦은 산불로 인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산불확산의 주범이 소나무라는 지적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산림의 주종이 소나무인데 전체 삼림의 36%라는 것이다. 나무들 가운데 불이 붙기 쉬운 송진을 분비하며 게다가 소나무는 뻘뻘하게 불어서 자라기까지 하여 불이 나면 좋은 산불연료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국민들의 전통적인 소나무 사랑을 의식해서인지 다 찻자는 것이 아니라 숲을 살리기 위해서 뻘뻘한 소나무는 쏘아 내고 웃자란 소나무를 베어내자는 얘기도 곁들였다. 교육지책이라 할지라도 씩씩한 마음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토쿠365 신작한글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토쿠는 가로세로 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등호 스토쿠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가격의 두뇌퍼즐 사무라이스토쿠 손호성 저 | 스토쿠65 | 10,000원

4x3 Sudoku grid with numbers 8, 5, 1, 2, 9, 3, 6, 5, 2, 4, 8, 7, 6, 8, 3, 5, 4, 9, 5, 9, 3, 5, 8, 9

4x3 Sudoku grid with numbers 5, 2, 1, 3, 6, 1, 5, 3, 5, 2, 4, 1, 2, 6, 4, 9, 9, 6, 8, 2, 4, 9, 2, 4, 4, 5, 6

### 정답

4x3 Sudoku solution grid with numbers 7, 6, 8, 9, 2, 8, 2, 9, 1, 2, 1, 2, 9, 7, 6, 8, 8, 9, 9, 9, 8, 1, 2, 8, 2, 6, 7, 9, 8, 7, 8, 1, 9, 6, 2, 2, 6, 9, 2, 8, 9, 2, 1, 7, 1, 8, 8, 2, 1, 7, 6, 2, 8, 9, 9, 1, 2, 6, 2, 8, 9, 9, 7, 8, 8, 9, 6, 9, 7, 1, 2, 2, 2, 7, 9, 2, 8, 1, 9, 8, 6

http://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18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284호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